

사회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화요리 변영희가 어버이날인 8일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3000인분의 짜장면과 만두를 노인과 주민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도 어김없는 “짜장면 3천 그릇”

서구 풍암동 중국집 사장 9인 어버이날 봉사 9년째

“자식들도 안찾아 오는데,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주시고 얼마나 고맙겠어?” 어버이날인 8일 달콤한 ‘중장항기’가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 일대를 가득 메웠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행복의 웃음을 선물한 이들은 광주 서구 풍암동 중화요리 변영희(회장 김영의),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9명으로 구성된 변영희는 올해로 9번째로, 어버이날마다 ‘경로효친 대잔치’라는 이름의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7일 저녁부터 가게 문을 닫고 짜장면과 만두 3000

인분을 준비했다. 김영의(52) 회장은 “외롭게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짜장면과 만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라며 “걱정 없이 웃으며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1년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했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이 행사에 맞춰 풍암동주민센터가 각종 공연을 함께 펼치면서 ‘동네잔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암 근린공원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찾으면서 배식대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300여m 이상 줄이 늘어섰다. 어르신들은 물론 주부에서 아이들까지 정성이 담긴 짜장면 한 그릇을 맛

봤다. 박정식(75)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같이 나와 1시간 동안 기다렸다”며 “공짜여서 맛있고 어른들 대접하려는 마음씨가 너무 좋아 더 맛있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식탁도 따로 없고 반찬도 없었지만 잔디밭이나 화단에 걸터앉아 맛보는 짜장면에 동네 주민들은 하나가 됐다. 정오부터 시작된 배식은 오후 3시가 넘어서 짜장면 재료가 떨어지면서 끝이 났다. 김 회장은 “여력이 된다면 내년에는 풍암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어버이가 계시는 내가 있고, 또 내 자식이 있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6·7월 실시

7개 대학 수시모집 전형 활용...영역별 4등급 구분

올해 7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에 활용되는 첫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이 오는 6월과 7월 각각 실시된다. 성적은 절대적인 성취기준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구분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20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을 6월24일(1차 시험)과 7월29일(2차 시험)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치러지는 20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7개 대학)에 시범 활용된다. 대입 수시모집 활용 7개 대학은 강릉원주대와 공주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이상 국립), 대전대와 동서대(이상 사립) 등이다.

시험 대상은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합격자 등) 중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을 활용하는 7개 대학의 수시모집 어학특기자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다. 수험생 답안은 영역별로 자동 채점(듣기, 읽기) 또는 인중 과정을 거친 채점위원에 의해 채점(말하기, 쓰기)되며 성적은 절대적인 성취 기준에 근거한 영역별 성취 수준을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해 통지된다. 성적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폭 강화

건강보험 삭제·명단 공개 방안 검토

앞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리베이트 거래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주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삭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외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관

매·입대업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수수액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액수가 크면 그만큼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를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사실이 포착돼 수수액을 파악하게 되면 면허자격 정지 기간 등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감점하고, 인증된 후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eatur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temperature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and a 5-day weather outlook table.

경찰청, 운전중 DMB시청 처벌 추진

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본보 5월 3일자 7면)을 받아들였다. /연필뉴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또 ▲학교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특색화 프로그램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학교환경 지킴이·학생·학부모 자원봉사단이 함께하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학생사랑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개인택시 8년만에 50대 증차

택시운전자 40대·국가유공자 등에 나머지 배분

광주에 개인택시 50대가 새로 증차된다. 지난 2004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지 8년 만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 민원처리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는 장기 근속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숙원이었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택시 감차 및 면허취소

분 50대를 면허 공고하고, 신규 면허분에 대한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운전자 40대, 국가유공자 2대, 5·18 민주유공자 1대, 시내버스 운전자 4대,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 2대, 여성운전자에게 1대씩이 각각 배정된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면허공고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는 9월 18일까지 서류심사, 10월2일까지 이

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22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재영여건 등을 감안해 매년 일정량의 법인택시 감차를 전제로 택시 총량을 줄인 뒤 감차 대수의 50% 내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허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감차 보상을 통한 개인택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공문화 과정을 거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추진하게 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권익위, ‘생선 간 암 특효’ 판매업자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생선 간을 암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넘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L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이러한 생선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썩음 기술, 침출해 1.5L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이러한 생선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남구, 학교폭력 예방 ‘학생사랑합’ 첫 구성

광주시 남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학부모·학생·교사·경찰·시민단체 등 633명이 참여하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학생사랑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생들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또 ▲학교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특색화 프로그램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학교환경 지킴이·학생·학부모 자원봉사단이 함께하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학생사랑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Australia. Includes pric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travel agency.

Footer section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of the compan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locations like Bukgu, Sangmu, and Jeonju.